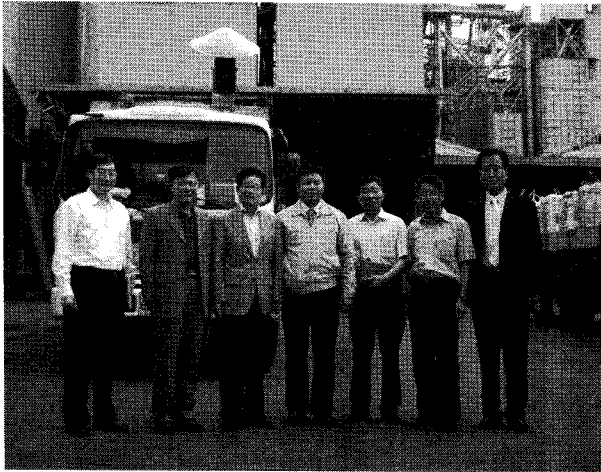




## 협회장 동정

### ● 회원사 순방



▲ 조남조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영남지역의 한 회원사를 방문하여 공장을 둘러본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조남조 회장은 지난 4월달에 이어 5월부터 7월초까지 전국에 있는 회원사 전체를 시간이 나는 대로 차례로 방문하여 구제역으로 인해 사료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애로사항 등 경영 전반에 걸친 고충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 ● 임시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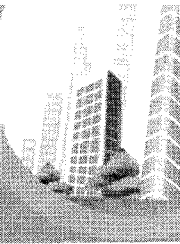
지난 5월 24일 협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회원가입 안전을 상정하여 논의한 결과 (주)이지바이오시스템이 본회 준회원으로 가입됐다

### ● 제8회 육우데이 행사 참석



▲ 제8회 육우데이 기념식

지난 6월 9일 한국낙농육우협회 주관으로 청계천광장에서 개최된 제8회 육우데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육우고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고 축산관련 기관 및 단체장들과 환담을 나눴다.



## ① 제5, 6차 이사회 개최

지난 5월 24일과 6월 28일 제5, 6차 이사회를 각각 열고 하반기 할당관세율 추가 인하 방안 등 산적한 업계 주요 현안들을 장시간에 걸쳐 논의했다.

## ② 美 아이오와주 농무장관 면담

지난 6월 8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무역사절단으로 내한한 미국 아이오와주 윌리엄 노씨(William H. Northey) 농무장관 일행과 만나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간의 상호 이해 증진, 교류협력 및 유대강화를 공고히 해 나아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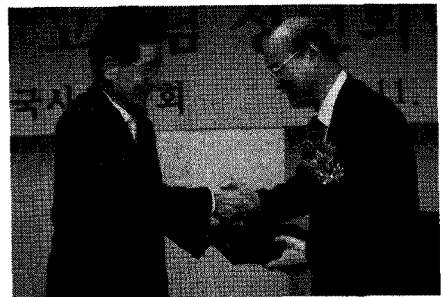
## ③ 대한수의사회장 취임식 참석

지난 5월 16일 대한수의사회 김옥경 회장의 취임식에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전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 협회동정

## ① 사료기술연구소 박장희 고문 정년퇴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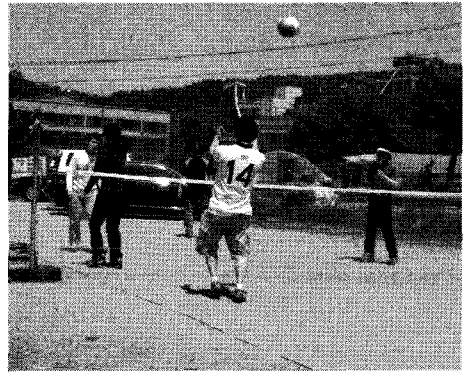
▲ 조남조 회장으로부터 공로패를 받고 있는 박장희 고문(右).

지난 7월 8일 본회 사료기술연구소 박장희 고문의 정년퇴임식이 전 임직원과 외부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 고문은 경북대학교 농대 농화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 낙농학과 농학석사, 일본 동북 대학 농학연구과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주)우성사료 사료개발연구소장, (주)서울사료 품질총괄이사를 거쳐 지난 1993년 6월 14일부터 본회 사료기술연구소장직을 맡아오다 지난해 7월 사료기술연구소 고문으로 발령을 받아 그동안 우리나라 축산·사료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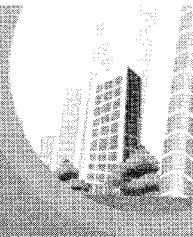
또한 박 고문은 현재 사료산업발전연구회 초대회장, 한국가금학회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다.

### ● 춘계 체력단련 등반대회



본회는 지난 5월 14일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계산에서 춘계 체력단련 등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등산, 족구대회 등을 통해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농림수산식품부**

서규용 장관 취임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사진)이 지난 6월 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서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그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현장 농정을 약속했다. 특히 “미국, EU와의 FTA발효에 대비해서 현재 추진 중인 국내 보완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보완하는 한편 우리 농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1948년 1월 충북 청주 출생으로 청주고(‘66), 고려대 농학과(’73)를 나와 미국 농무성 대학원(’78), 미 오하이오주립대학 교환교수를 지냈다.

서 장관은 1973년 기술고시 8회에 합격하여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농림수산부 채소과장·농산과장, 농림부 식량생산국장, 농촌진흥청장, 농림부 차관 등을 거쳐 2006~2007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겸임교수, 2006~2008년 한국농어민신문 사장도 역임했다.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한 서 장관은 농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30년 정통 농림관료로 책임감이 강하여 상하 간에 신뢰가 두터우며 불도저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농림부 차관보 재직시 직불제 기획단장을 맡아 쌀직불제를 도입했고, 농작물재해보험을 처음 실시하는 등 선진형 농업제도를 과감히 도입했으며, 특유의 독심과 추진력이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농촌진흥청장 재직시에는 인사혁신 정부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농정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MB집권 후반기 “일하는 정부”, “공정사회”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로 평가되며 하반기 MB 농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배우자 고용순여사와 1녀 1남을 두고 있다.

제2차관에 오정규씨 임명



지난 6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에 오정규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이 임명됐다.

신임 오 차관은 1957년 10월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영국 리버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 구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자원국장,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관,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축산정책관에 권찬호 경북대 교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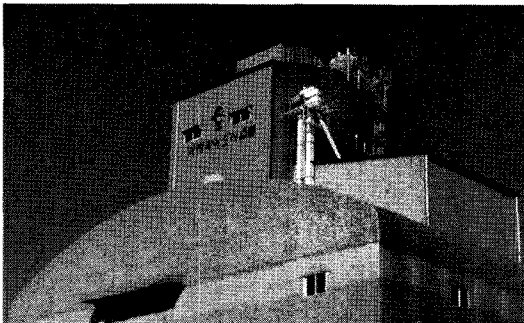


지난 6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에 경북대 축산학과 권찬호 교수가 임명됐다.

권 신임 축산정책관은 대학교에서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축산경영, 가축의 사양관리, 유기농 축산, 자원순환형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산업 밀착형 연구를 해왔고,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축산분야 교육사업, 연구사업 등에도 참여한 바 있어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이다.

● (주)이지바이오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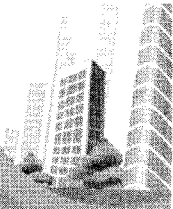
본회 준회원으로 가입



(주)이지바이오시스템이 지난 5월 24일자로 다음과 같이 본회 준회원으로 가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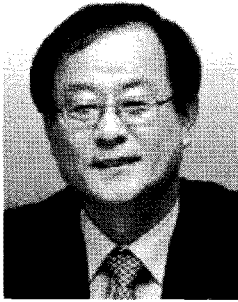
## 업계동정



- △ 상 호 : (주)이지바이오시스템
- △ 대 표 자 : 지 원 철
- △ 주 소(본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37-11(유니온센터빌딩 3층)
- △ 전 화 : (02)501-9988
- △ 팩 스 : (02)501-9989
- △ 일산능력 : 100톤

### ● CJ제일제당(주)

대표이사 변경



▲ 김철하 대표이사

CJ제일제당(주)은 지난 5월 11일부로 김철하씨를 신임 대표이사(총괄 부사장)로 선임했다.

### ● 허브한우영농조합법인

상호 변경

허브한우영농조합법인의 상호가 지난 5월 20일부로 남원섬유질사료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변경됐다.

### ● 동아원(주)

사료구매팀 본사로 이전

동아원(주)의 사료구매팀이 지난 5월 12일부로 여의도(대한생명 빌딩 54층) 본사로 이전했다.

- △ 사료구매팀 : 김정식 팀장(02)789-5127, 신승훈 과장(02)789-5089,  
장화진 사원(02)789-5192, 팩스 : (02)789-5192

## ● (주)사조바이오피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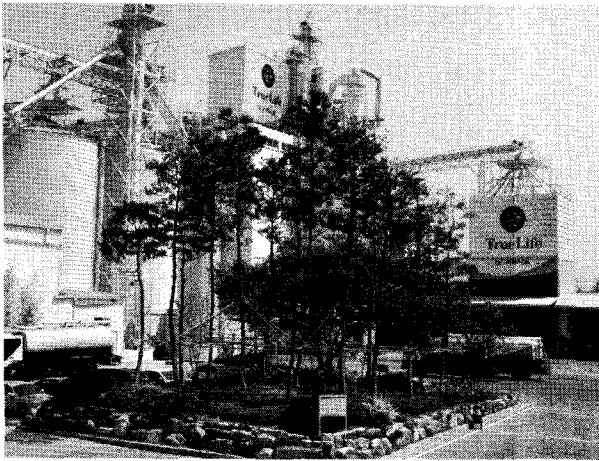
### 신규사업장 개설

(주)사조바이오피드가 지난 6월 13일부로 다음과 같이 신규사업장을 개설했다.

- △ 법인명 : (주)사조바이오피드 홍성공장
- △ 대표자 : 이창주
- △ 공장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 18
- △ 본사주소 : 전라남도 함평군 장년리 1346-2
- △ 전화 : (041)642-7420
- △ 팩스 : (041)642-7423

## ● 서부사료(주)

### 2회 연속 HACCP 무결점 인증



▲ 2회 연속 HACCP 무결점 인증을 받은 서부사료 공장 전경.

고객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는 서부사료(주)는 지난 5월 24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원으로부터 HACCP 심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에서 결함이 전혀 없는 무결점 판정을 받았다.

금번 2회 연속 무결점 인증은 2006년 서부사료 HACCP 최초 지정, 2008년 무결점 인증에 이은 성과로서 업계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는 서부사료 전 구성원이 일회성이 아닌 업무에 상시적으로 HACCP 체계 준수 및 동사 품질경영시스템을 철저하게 적용한 결과, 도심 속 친환경 공장 운영의 성공 케이스로 당당히





인정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도심에 위치한 서부사료는 주변지역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장 조성을 위해 2003년부터 도색, 녹화사업, 최첨단 플라즈마(Plasma) 설비 및 사료공장 최초 물 분사 탈취하우스 설비 구축, 소음 저감을 위한 노후 설비 교체 등 수십억 원을 환경 보존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

이외에 매월 2회 전 사원이 참여하는 ‘클린데이(Clean day)’ 실시와 현장 담당자별 ‘1일 공장 장 제도’ 운영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산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부사료 원재곤 생산본부장은 “2회 연속 HACCP 무결점 인증은 서부사료의 명품 최적사료는 위해요소 없는 청정 환경에서만 생산된다는 구성원들의 자부심과 노력에서 비롯된 성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부사료는 이번 2회 연속 HACCP 무결점 인증을 계기로 HACCP 선진지 공장 전학, 친환경 공장 운영 사례 발표 등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의 노하우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면서 축산인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농축산업계 선진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 ● (주)카길에그리퓨리나

방역활동 공로 인정 받아 전북도, 충남 연기군에서 표창



- ▲ 사진 왼쪽) 공로상과 표창장을 받은 카길에그리퓨리나 군산공장(左 김태근과장, 右 유충식 공장장)
- ▲ 사진 가운데) 공로상과 표창장을 받은 카길에그리퓨리나 정읍공장(左 최진호 공장장, 右 문영관 과장)
- ▲ 사진 오른쪽) 연기군수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김규옥 사장

지난 6월 23일 (주)카길에그리퓨리나 군산공장과 정읍공장은 전라북도로 부터 지난 FMD 기간 중에, 마지막까지 청정전북을 지키도록 방역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군산공장과 정읍공장은 FMD 발발 직후,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회사 내 방역 최고단계를 공표하고 전사적 방역활동에 나섰다. 차단 방역을 우선으로 공장 내 일체의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고, 회사 내 외부에 방역차량과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철저한 방역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농장 방역을 위해 전 벌크 차량에 소독약 분무시스템을 설치하여 농장 반경 500m에 소독약을 살포하였다. 특히 FMD가 도간 경계를 넘어설 때 금강 하구둑 근처에 환적장을 설치하고 공장 방역시스템 버금가는 방역설비를 설치여 차별화된 방역활동을 하였다.

또한 지난 5월 퓨리나 연기 특약점 김규옥 사장은 매일 같이 연기 지역 도로 및 축사 입구까지 소독하면서 FMD 방지에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아 충남 연기군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 ① (주)우성사료

우성사료 "우성 2530 클럽" 개최



▲ 2530클럽 회원들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주)우성사료는 지난 6월 29일 대전 소재 레전드 호텔에서 충청과 호남지역의 양돈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성 2530 클럽”세미나를 개최했다.

“우성 2530 클럽”은 MSY 25두, WSY 3,000kg, 사료효율 3.0을 목표로 하는 양돈경영인들의 모임으로 이날 행사는 사료내 항생제 첨가 전면 금지를 비롯한 FMD이후 양돈산업의 전망에 대한 주제로 워크숍 형태로 진행됐으며 벨엘농장 이귀재 사장은(전남광양) MSY24두 사료효율 2.84의 성적으로 최우수 농장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다.

이날 주제 강의에서 우성사료 김재형 양돈PM은 “현재는 국내 돈가가 좋아 양돈장의 수익성이 좋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양돈산업에는 긍정적 요인보다 부정적 측면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5월 말 현재 기준 돼지고기 수입량이 이미 지난 한 해의 수입물량을 넘어서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소비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료내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에 따라 단기간 생산비 증가와 생산성저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의 양돈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진검승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우리나라보다 10여년 앞서 무항생제를 실시한 유럽의 축산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항생제 사료 에코장

### 무항제 사료 “에코장”으로 경쟁력 확보

우성사료는 2004년 부터 양돈 선진국 네덜란드와 기술제휴를 통해 유럽의 양돈 선진 기술을 우리나라 제품에 접목하고 있다.

7월 부터 실시된 사료내 항생제 첨가 금지에 따른 고객 농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덜란드의 세계적 사료 연구소인 스코드호스트의 연구진과 단국대 김인호 교수팀과의 1년 6개월 실험 끝에 개발한 무항생제사료 에코장 신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그 효과도 성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에코장은 항생제 첨가 없이 생산성 및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기능이 더 향상된 제품으로 만들어졌으며 갓돈과 비육돈 라인의 전 제품이 출시되어 무항생제 사료로 문제 될 수 있는 갓돈 구간과 젓먹이 구간에서 더욱더 위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행사의 자세한 내용과 제품 정보를 QR cord로 확인할 수 있다.)



● (주)태영그레인터미널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준공

양곡부두 5만톤급 2선석 준공으로 평택·당진항 활성화 기대



▲ 선박 접안.

▲ 사이로 전경.

▲ 양곡부두 조감도.

국토해양부는 경기남부 및 충청권 일부의 원활한 곡물 등의 공급을 위하여 지난 2007년 7월에 착공했던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2선석을 금년 7월 에 준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되는 양곡부두는 민간투자사업자인 (주)태영그레인터미널측이 1,647억원을 투자한 공사로서 207,813㎡ 면적의 항만부지 및 161,459㎡ 면적의 배후 부지를 갖추었으며, 5만톤급 2개선석의 일직선 560m안벽, 국내 최대의 일시 저장능력 320,000톤 사이로등의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부두 운영시 분진 방지를 위한 밀폐형 컨베이어시설과 최신의 언로더 3기 등을 갖춘 부두시설을 갖췄으며 안벽 수심이 14.5m로 설계 시공되어 대형선박의 접안이 용이한 장점을 갖췄다.

사업자인 (주)태영그레인터미널은 이 부두가 본격 운영되면 경기남부권 양곡화물의 분산처리로 물류비가 절감되는 효과와 국가의 식량안보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후 부지에 112,000㎡ 규모의 사료공장 및 대두유공장이 건설 예정으로 되어 있어 평택당진항이 향후 대한민국의 곡물 수입 중심항만으로 부상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 준공전 사용 신고를 통하여 사료협회 사료용 옥수수 선박(7만톤급 M/V TAN JIN MARU호)이 접안하여 시운전 및 하역을 수행하여 부두의 하역능력을 확인한 바 있다.

아울러,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 및 사료업계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통하여 국가 경쟁력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